KOSSDA 제19회 데이터 페어 개최 : 주제, 관점, 방법으로 새로워진 질적자료 이해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는 2025년 9월 26일 서울대 101동 삼익홀에서 '주제, 관점, 방법으로 새로워진 질적자료 이해'를 주제로 제19회 KOSSDA 데이터 페어를 개최했다. 이번 데이터 페어는 KOSSDA 연구데이터 주간 행사의 하나로 개최되었으며, 새롭게 정의되고 분석되는 질적자료의 쓰임새에 주목하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과 다양한 관점들을 조망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김대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은 축사에서 질적자료가 기존의 텍스트 중심 범위를 넘어 시각자료,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 이어 알고리즘이 생성한 데이터까지 확장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질적자료가 인간 경험의 복잡성과 의미의 깊이를 재조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질적자료의 변화와 함께 데이터 페어를 통해 다학제간 논의가 활성화되고 문제의식이 공유된다면 새로운 질적연구방법이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호 KOSSDA 원장은 환영사에서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지난 30여 년간 주로 양적 자료 중심의 아카이브를 구축해 왔으나 사회 현상을 숫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가운데 질적자료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질적자료의 위상과 함께, 질적자료는 자료의 맥락과 연구 관심에 따라 새로운 통찰이 가능하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그 활용 가능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행사의 의의를 짚었다.

1. 발표

첫 번째로 조원광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마음의 구조와 자연어 처리〉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조원광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마음의 구조와 자연어 처리〉 발표에서 인간의 판단과 감정을 이끄는 무의식적 힘의 장을 마음의 구조로 정의하며 대규모 언어 데이터를 분석하는 자연어 처리가 이를 탐구하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발표자는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사회과학 연구자의 눈높이 맞춰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제한적이지만 이것이 시사하는 새로운 질적연구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두 번째로 최문희 KOSSDA 책임연구원은 〈아카이브를 활용한 질적연구: KOSSDA 사례연구〉를 발표했다. 발표자는 질적자료의 2차 분석이 단순한 재사용이 아니라 자료의 맥락을 읽어내고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윤리적으로 그리고 책임감있게 재맥락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SSDA의 연구과제였던 〈여성 노인 생애사 인터뷰〉 자료의 재이용 사례는 원자료 생산자가 주목하지 않았던 고학력 전문직 여성 노인의 노년 경험이 새로운 연구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귀납적으로 도출해냈다고 소개했다. 이렇게 아카이브 된 질적자료의 재이용 사례를 통해 연구자의 질적자료 리터러시 역량이 질적자료 재이용 방법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세 번째로 박영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국제보건과 민족지적 연구〉를 주제로 에티오피아 오로모 지역에서 수행한 국제보건 민족지 연구를 소개했다. 한국의 가족계획 지원사업이 현지에서 제노사이드로 오해받은 사례를 제시하며 겉보기에 비합리적 문화로 보이는 산후 금기나 백신 지연 같은 현상도 실제로는 오랜 식민 지배와 민족 갈등이 남긴 구조적 폭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학살 경험과 정치적 억압이 공동체의 출산 결정과 보건행태를 규정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국제보건 연구와 정책에서도 단순한 문화적 장벽 접근을 넘어서 역사적·정치적 맥락을 함께 읽어내는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 전가일 연세대 교육연구소 연구교수는 〈한 질적연구자의 믹스견-되기: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에서 구성하는 질적자료 사례〉를 발표했다. 두 마리 반려견과의 삶을 통해 인간 연구자와 비인간 존재가 함께 자료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탐색한 전가일 교수는 질적자료를 문자 기록 중심이 아닌 감각과 몸, 물질에 얽힌 구성적 자료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SNS에서의 기록, 사진, 입양 과정 문서, 개인적 체험 등을 활용한 사례를 통해 포스트휴머니즘 시선에서 질적자료의 범위를 인간 발화를 넘어 이종 간 상호작용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 질적 연구의 인간 중심성을 넘어 연구자와 비인간 존재가 함께 의미를 생성하는 새로운 질적 연구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마지막 발표로 오지선 강사(KAIST 기술경영학부, 고려대 국제대학 강사)는 전문직 CEO 면담 기반 사례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지선 박사는 변호사, 치과의사, 특수영상감독, 여성 개발자 등 초전문직 CEO들을 심층 인터뷰해 경영 전략과 조직 운영 방식을 분석한 연구를 소개하며 이들이 기술·의료·법률 등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기업가적 리더쉽과 고객 중심 경영을 결합하여 성과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전문직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더불어 조직 신뢰 구축, 따뜻한 리더십, 사회적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면담 연구 결과를 강조하면서 발표자는 질적 사례연구가 양적 분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경영자의 의사결정 과정과 산업 특수성을 드러내는 데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2. 질의응답

주제 발표 이후 김혜진 KOSSDA 연구원의 사회로 발표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토의 시간을 가졌다. 주요 질문 중 하나는 빅데이터/AI가 질적 자료 수집과 분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었다. 조원광 교수는 특히 온라인 텍스트 데이터의 대표성 문제에 대해 SNS 데이터의 편향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집단의 독특한 담론 자체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에 의존한 자료 검색 및 수집이 '편향성'을 가진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AI의 데이터 수집과 처리는 연구자에게 의미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다만 발표에서도 언급했듯이 AI 자료는 연구보다는 산업/서비스를 우위에 둔 알고리즘 중심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설명과 과정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의 주의와 확인은 필수라고 말했다. 전가일 교수는 현재 AI는 의미를 해석하기보다 빈도를 정렬하는 수준이며 해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오지선 박사는 기초 코딩 같은 반복 작업은 AI에 맡기되 맥락 해석과 통찰은 연구자의 몫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다른 주요 이슈는 아카이브 질적자료 재사용의 윤리와 절차에 대한 질문이었다. 최문희 연구원은 질적 자료 재이용 동의 절차와 참여자 보호 문제를 다루는 IRB 같은 제도적 차원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연구 실천에서 연구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발표 사례에서처럼 재이용을 생각하는 연구자들은 자료의 가치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기본이자 필수인 질적자료 리터러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별 발표자에 특화된 질문들도 다루어졌는데 박영수 교수에게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질적연구에서 자료 수집의 전략과 특징을, 전가일 교수에게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비판적 질적연구인식론이 연구자의 자료 수집과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오지선 강사에게는 전문CEO 면담이라는 방법은 연구 결과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런 방법이 가능했던 조건과 시행착오에 대해 질문하였다. 종합 토의는 질적자료 이해와 활용, 그리고 이에 반응하는 질적연구방법론 논의가 더욱 확장되기를 바라며 마무리되었다.

3. 마치며

제19회 데이터 페어는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으로 치러졌다. 데이터 페어 웹페이지(https://www.kossdadatafair.com)를 통해 홍보되었으며 다양한 기관에서 사전신청과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였다. 현장 참여자는 약 30명이었으며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다. 사전 신청 참여자들의 소속은 서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경희대, 성균관대, 인하대, 전남대, 한신대, 백석문화대 등과 같은 학교뿐만 아니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연구 기관도 있어 데이터 페어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주제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제19회 데이터 페어 녹화영상은 공개 동의를 한 발표자에 한하여 KOSSDA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